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59호 현대불교  
2009년 11월 25일(음 10월 9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 모든 것은 나은 자리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여기 여러분과 더불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새삼 느끼는 바는, 이 포항 지역에 여러분의 마음이 서로 한데 어우러지면서도 사연 깊은 흐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토론했던 이 전에 이렇게 몇 마디로 표현해 봅니다.

물은 깊어 흐르고  
물새들은 떼를 지어 날고 있고  
깊은 뿌리의 나무는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마다 봄이 오기를 기다리구나.

이것이 바로 포항 지역의 느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불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라고 하면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알라신교 등과 같이 개별적인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불(佛)이라는 뜻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인 그 핵심을 말하는 것이고, 평상시에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말씀하시는 거나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다 교(敎)입니다. 부처님의 말씀만 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는 까닭에 부처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이라고 해서 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교 하나도 불성이 없는 게 없으니 불교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뉴욕에 가서도, 가톨릭이나 기독교의 여러 분과 더불어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다면 고목이 있고 큰 나무가 있다면 작은 나무가 있고, 높은 산이 있다면 낮은 산이 있고, 그래서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진리며 길이며 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역이든지 구별 없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고, 뭉쳤으면 바로 일체 만법을 내고 들이는 데 여여하여야만이 실천공행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공(空)에 떨어져도 안 되고 사(舍)에 떨어져도 안 되고 네 마음의, 즉 무의 50% 유(有)의 50%를 한데 제함을 시켜서 중용을 해라.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모두,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가톨릭교든지 중용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런 말을 한번 하고 하죠.

제가 예전에 가톨릭교에 입교했을 때의 일입니다. 자기가 생활하면서 잘못된 것이나 친구와 서로 어울리가 진 문제들을 가지고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해 놓고 저분한테다가 고함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즉 말하자면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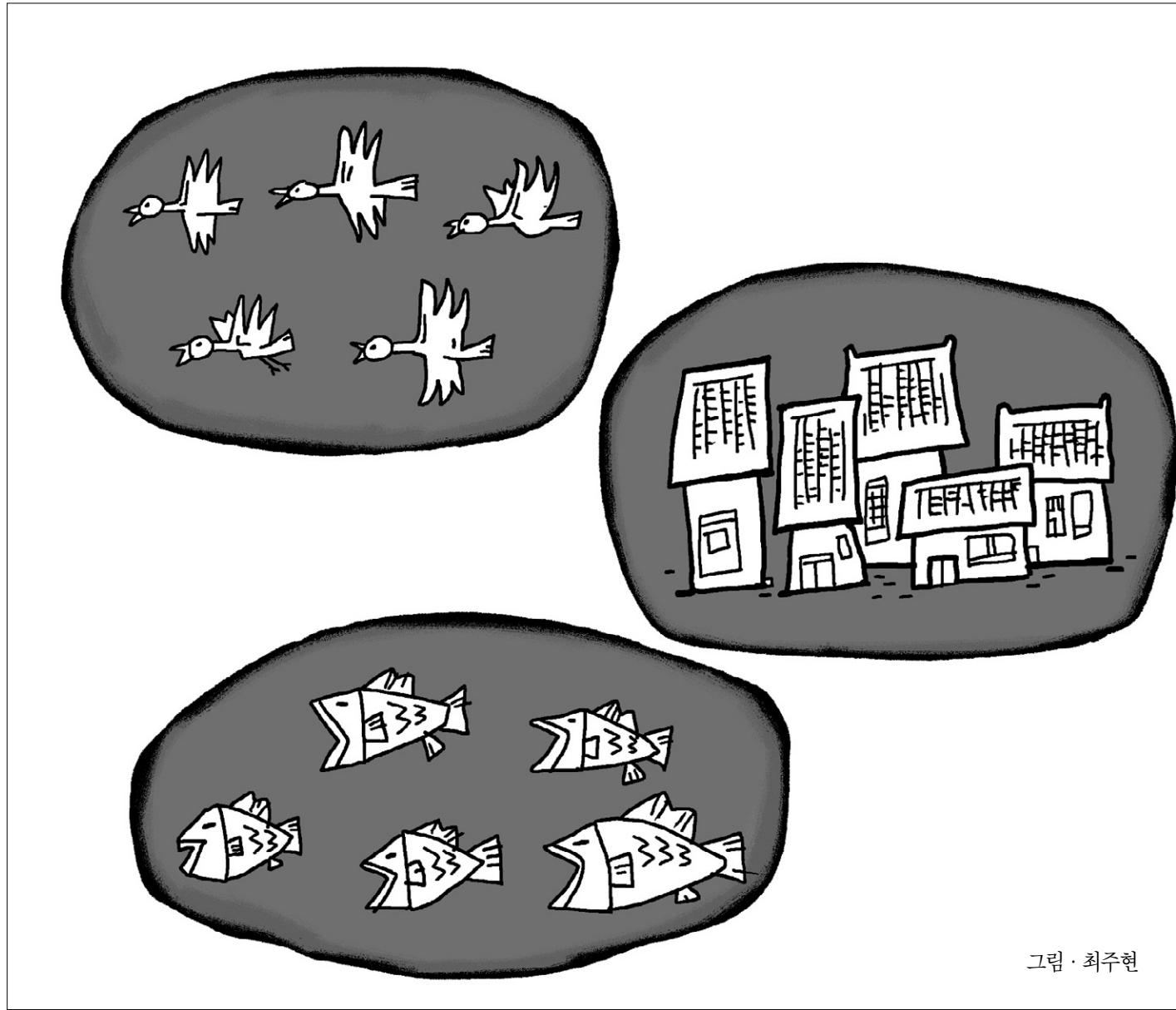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기가 잘못된 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백 번을 더 해야만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끔 했습니다.

우리는 자력 신앙으로 나가야지 타력 신앙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를 반드시 발견하고, 또 발견했으면 들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 도리는 반드시 나로부터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바로 그때가 태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바로 내가 화두며 행이 바로 참선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그냥 참선이고, 내 몸이 화두고 그렇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얘길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니까요. 무명에 의해서 사대를 좇아서 이 몸이, 생명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억겁 광년을 거쳐서 진화되면서 우리는 인간까지 이렇게 성장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각자 나부터 알아야 한다. 석존이 여기 계신다 할지라도 석존 몸에 의지할 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의 뜻이 바로 자기 마음을 깨달

는 데 있으니 그 뜻을 따라 돌이키게 모든 것을 맡겨 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영혼이 있었다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떠한 가정도 끼리끼리 모두 모여 사는 겁니다. 이 세상 모두를 보세요. 누가 끼리끼리 모이지 말래도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놓고 빠집니다. 이 세상이 전부 팔만대장경이고 팔만대장경이 바로 이 세상이기니까요. 그러니 끼리끼리 모인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 난자가

한데 모여서 임신이 될 때 수십억 마리가 한데 합쳐져서 생깁니다. 그럼 거기에서 딱 하나가 뽑힙니다. 뽑히면 그 물질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전자에 내가 나오기 이전의 인(因)으로 인해서 현재의 과(果)로 뭉치면서 악업 선업이 다 한데 합쳐져서, 내 한 사람 뽑힌 데에 거기 같이 붙어 돌아갑니다. 그래서 몸뚱이 하나가 생기는데, 부모한테서 뺄을 빌리고 살을 빌려서 몸뚱이는 받았으나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모든 게 과가 돼서 악업 선업이 돼 가지고 그것이 몸뚱이 속에서 지금 전부 회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말합니다. 자기가 한 대로 하나하나 나오면서 자기를 속상하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가난이 오게도 하고 병이 오게도 하고, 발걸음 다 합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것에, 천차만별로 그렇게 나오는 것에 왜 속느냐는 거죠. 바로 내 지배인의 마음, 즉 말하자면 이 몸을 다스리는 지배인의 마음과 한마음으로 돌아가게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거리가 되팔겨 놔야죠. 바로 기계를 만든 사람이 기계 고치기도 쉽듯이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한꺼번에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주인이자 모든 게 공했으니까요.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했으니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는 데 세 가지의 아주 좋은 공덕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에다가 맡겨 놓는다면 모든 인과, 즉 업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법이요. 둘째, 모든 습을 녹이는 법이요. 셋째, 그 습이 모두 떨어지니까 그릇이 텅 비어서, 즉 카세트에 노래를 넣었다가 또 다른 노래를 넣으면 없어지고 또 다른 노래를 넣으면 또 없어지듯이, 그렇게 그릇이 비어서 항상 들고 낼 때에 아주 가볍게 들고 내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찌르러지지 않아, 여여하게 돌아가니까 바로 그때에 참나는 얼굴을 내밀고, 그때에 부(父)와 자(子)가 상봉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참으로 한데 제함이 돼서 전자의, 내가 나오기 이전과 지금 현재 나와 돌이 아니게끔 상봉이 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나한테서 내가 나왔으니까 내 뜻이고 또 상대가 있는 것도 그렇고, 잘못되고 잘되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것도 전부 나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겼으니 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되 '잘되게 해 주시오.'가 아닙니다. 그럼 벌써 돌이 되니까 모든 것은 나은 자리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26면으로 계속

## 당뇨. 비만 Diet

### 임상

고치가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맞춤 한방치료로 병력에 관계  
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치료되는  
최신 방법으로 기쁨과  
만족을 선물 받으세요.

임상실험 Test 응하실 분 3일간  
평균혈당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한솔한의원  
031)555-7780

##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부·대학원 불교학도의 날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와 대학원에서는  
제 6회 불교학도의 날을 奉행합니다.

- 일 시 : 2009년 12월 3일(목) 오후 6시
- 장 소 : 포항 대왕예식장 1층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 전화 281-3000)
- 문 의 : 원필성 교수님 016-519-4118



##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부·대학원 飯僧法會

귀의 삼보하옵니다.  
계달음에 이르는 길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智慧의 길이요 또 하나는 慈悲의 길이입니다. 명상과 나눔입니다.

향상 수행자로서 각자의 佛心의 般若智慧를 밝히고 그 지혜를 대중에게 자비로 회향하고자 정진하시는 위덕대학교(불교문화학부·일반대학원·불교대학원)에 인연 있는 威德의 僧伽學徒 여러분! 時節因緣으로 도반들과의 좋은 만남을 法槌하고자 대중스님들을 모시고 좋은 장소 좋은 시간에서 飯僧法會를 奉행하고자 합니다.

부디 隨喜同參하시어 歡喜踴躍의 法樂되시기 바랍니다.

- 장 소 : 위덕대학교 불교학과 강의실 F 303
- 시 간 : 불기 2553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6시  
위덕대학교 일반대학교 박사과정  
현담(010-7109-3281) 합장.

정토교학의 선지식 군맹당 서진스님의  
병든 인생을 치료하는 묘약(妙藥)

## 『관무량수경』 공개강좌 수강생 모집

개강 : 2009년 12월 2일(수요일)

■ 기 간 : 2009년 12월 2일(수요일)개강 후  
6개월간

■ 시 간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수 강 료 : 10만원

■ 모집인원 : 선착순 50명

■ 장 소 : 서원사 불교문화센터

■ 접수마감 : 2009년 11월 30일까지

■ 전 화 : 02)983-7484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수강료 계좌입금



## 2010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안내(야간)

### ■모집학과 및 인원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불교	불교학·선학	00명
불교사회복지	사회복지	
생사의례	생사의례	
치문화콘텐츠	다도·제다	
명상심리상담	명상심리상담	

### ■지원자격

- ◆석사과정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 또는 2010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지도자과정

- 각 불교 종단의 스님
- 각 신행단체의 임직원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원서 교부 및 접수	2009.11.9(월)~27(금)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전형 및 장소	2009.12.5(토) 10:00~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및 개시관에 응교

### ■특전

-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직승려, 조계종 중우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불교인론인,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생사의례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 수료자는 정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TEL. 02-2260-3097~8 FAX 02-2260-8627  
http://gsbs.dongguk.edu

